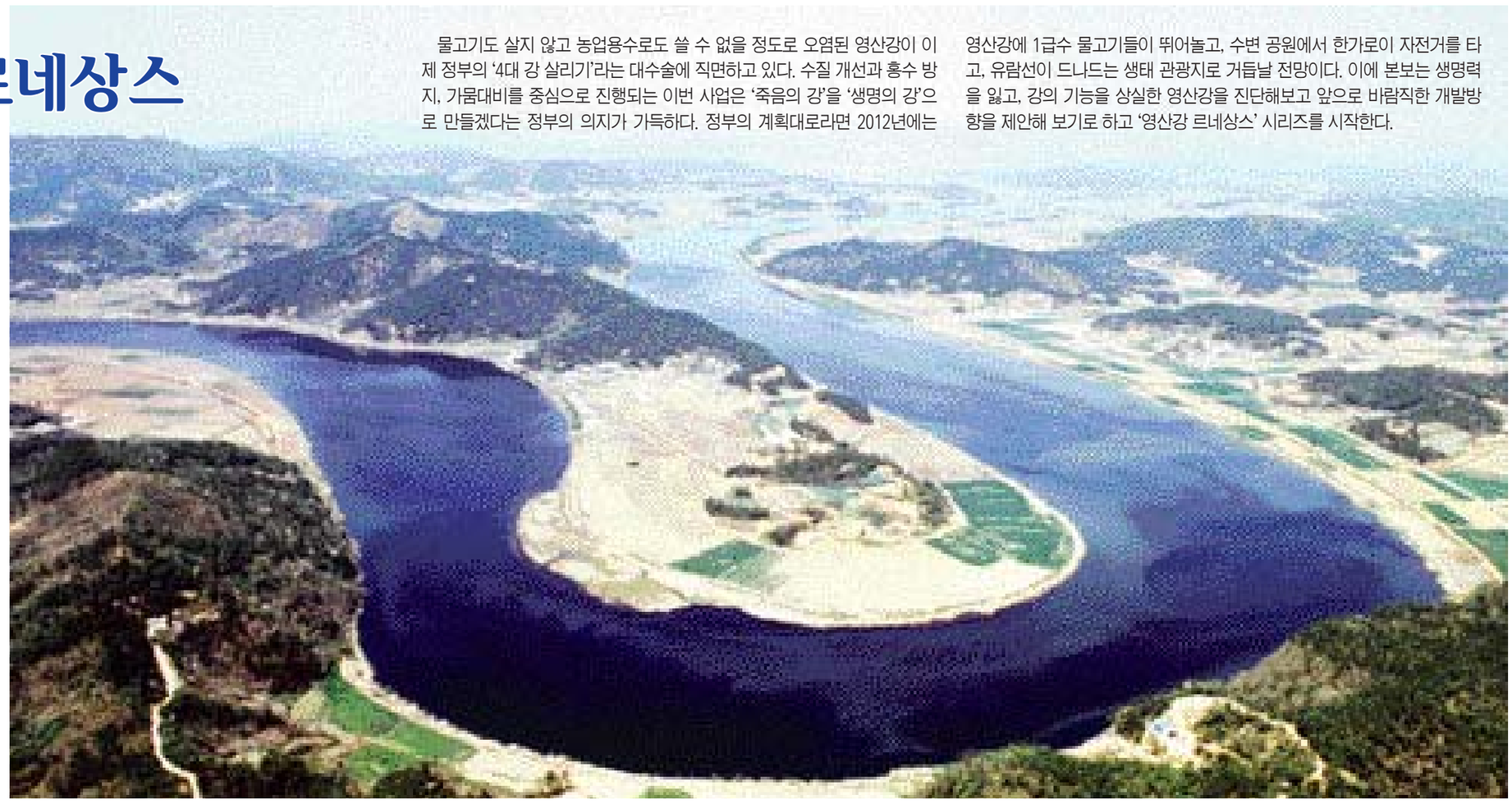
영산강 르네상스



물고기도 살지 않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영산강이 이제 정부의 '4대 강 살리기'라는 대수술에 직면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 가뭄대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가득하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에는 영산강에 1급수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수변 공원에서 한가로이 자전거를 타고, 유람선이 드나드는 생태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생명력을 잃고, 강의 기능을 상실한 영산강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안해 보기로 하고 '영산강 르네상스' 시리즈를 시작한다.

〈1부〉 살아있는 강으로

❶ 오염 실태와 원인

댐·하구둑에 물길 막혀 '죽음의 강' 전락

비옥한 토지와 생명수를 주며 남도민에게 풍요한 삶의 터전을 제공했던 영산강이 무거운 침묵 속에 묵묵히 남도 땅을 굽이굽이 흐르고 있다. 물길이 끊기면서 '죽음의 강'으로 변한 영산강이 이제 정부의 '4대 강 살리기'라는 대형 개발계획에 직면하고 있다.

둔치 경작 비료·농약 유입

170개 샛강 수질 악화 요인

담양 용추에서 시작된 영산강은 광주와 나주를 거쳐 목포 앞바다까지 350리 기나긴 물길을 굽이굽이 이루며 남도민에게 비옥한 옥토와 생명수를 제공했다.

또한, 극락강과 지석강 같은 큰 물줄기를 비롯한 샛강만 170여 개를 품고 묵묵히 남도의 땅을 지켜왔다. 그래서 영산강 유역은 예로부터 땅이 기름졌고, 바다와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영산강은 선사시대부터 문명의 꽃을 피웠고, 그동안 수없는 문명을 이뤄내며 남도 번영의 힘이자, 풍요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다.

또한, 바다 운송까지 발달해 목포와 나주 영산포 간에 배가 왕래하면서 내륙인 나주 영산포가 농산물 집산지로 지역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8·15 해방 이후에도 20~30t 급 어선 20~30척이 정박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물길이 끊기고, 많은 오염원이 생기면서 강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물길 끊기며 죽음의 강으로 변해**=영산강은 나주까지 조수가 밀려오는 감조하천(感潮河川)으로 바닷물의 피해가 많았고, 홍수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산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치수를 위해 1976년에 나주댐·담양댐·장성댐이 완공됐고, 1981년에는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사이에 영산강 하구둑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영산강 유역은 가뭄과 홍수, 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지면이 높은 갯벌은 농경지로 변했다.

또한, 영산강 상류에 댐이 만들어진 뒤 하상의 변동과 수량이 줄면서 목포와 나주 영산포까지 왕래했던 배는 1977년 10월을 끝으로 중단되면서 영산강은 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뒤늦게 정부는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을 세우고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한번 어긋난 자연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영산강 물길이 영산강 하구둑에 막힌 지 올해로 28년. 영산강은 무거운 침묵 속에 말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유역 내 무분별한 둔치 경작**=영산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은 막힌 물길도 물길이지만, 유량 부족과 유역 내 무분별한 둔치 경작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 하수처리 시설 부족 때문이다. 생명의 강 연구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37.4%로 4대 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영산강 수계는 유역 내 토지 구성 중 농경지가 33.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4대 강 중 비율이 가장 높고 임야 비율은 가장 낮아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산강 둔치 면적 25.78㎢ 중 36%인 9.29㎢가 경작지로 비료나 농약이 여과 없이 빗물 등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더구나 경작지 9.29㎢ 중 70% 정도인 6.51㎢가 불법 경작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 유역 경작으로 인한 오염원이 수십 년 동안 야금야금 영산강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많은 농경지로 인해 물 사용량이 많은 점도 영산강의 문제점이다. 수량이 많을 경우 오염원을 쓸고 바다로 내려가지만, 영산강 유역 내 농사에 사용되는 물이 많아지면서 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영산강 상류 댐의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하다 보니 갈수기에 물이 전혀 없어 영산강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샛강 오염도 큰 문제**=영산강에 딸린 170에 달하는 샛강의 수질 악화도 큰 문제다. 영산강의 170개 샛강 중 96%인 163개 하천이 지방 2급 하천이다. 하지만, 그동안 영산강 본류 위주의 수질개선 대책만 추진된데다 샛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샛강 수질 오염이 영산강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영산강 상류 저수지 축조로 인해 대부분의 샛강이 갈수기에 마른 하천이 되면서 유량이 크게 부족한 점도 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수중보 설치로 인해 물길 정체 현상과 함께 가축분뇨, 각종 쓰레기,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무분별하게 영산강으로 유입되면서 영산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내 마음 속의 영산강 — 신정훈 나주시장

"재첩 주으며 하루종일 놀아도 질리지 않던 강"

'산이 좋아 영산포냐! 물이 맑아 영산포냐! 산도 물도 좋다마는 님 없으니 눈물이다. 갯바람 소금바람 비린내로 정든 고향 영산포 내 사랑을 나는 나는 진정 못 잊겠네'

축음기 레코드가 기우뚱대며 돌면서 들려주던 영산포의 노래는 지금도 내 귓전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영산포! 초등학교를 마치고 처음 도회에 진출했던 곳 영산포. 장승배기를 지나 선창에 다다르기도 전에 저만치서 나를 반기던 황시리 젓국 냄새며 홍어 삭은 냄새는 지금도 내 몸에 배어 있는 듯하다. 좀 더 나아가면 넓고 푸른 강을 만났다. 용추골에 떨어진 빗방울이 한 덩어리 되어 거침없이 흘렀던 강, 영산강! 어렸을 적에 멱 감고 재첩 주우면서 발가벗고 하루 종일 놀아도 질리지 않았던 강, 영산강.

그러나 지금 포구에 배는 사라지고 등대엔 불이 꺼진 지 오래다. 그리고 긴 세월을 그냥 그렇게 외로이 서 있을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불행하게도 지금의 영산강은 전국 4대 강 중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 되었다. 남도 350리를 굽이쳐 흐르면서 곡창 평야를 촉촉하게 적셔주었던 물줄기에는 폐수만이 흘러 현재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제 곧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생태를 복원해 영산강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강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게 할 계획이다. 또, 강을 끼고 발달했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을 되살려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야 한다. 물길을 열고 강바닥을 준설해서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바닷물도 들어오게 해야 한다. 물길을 통해 사람이 오가고 물류도 오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강의 참 모습이다. 강이 살아야 사람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 영산강 살리기로 문화·관광·역사·농촌 등 모든 분야에서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강 살리기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면 샛강을 살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촌을 만들고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섬세한 그림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짜내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잘 매치시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